

푸른 눈의 태극전사 “제2의 조국 한국 위해 뛴다”



D-30

‘동네북’ 한국 아이스하키 귀화선수 합류로 급성장
34년만에 日 격파·세계선수권 월드컵피언십 진출

평창선수단 150명 중 19명...아이스하키 14명
바이애슬론 월드컵 6관왕 랍신 등 메달 획득 기대

지난해 12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2017 유로하키투어 채널원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국인 한국이 특별 초청 형식으로 참가한 이 대회에는 세계 톱클래스 국가들이 거의 빠짐없이 참가했다.

세계 랭킹 21위 한국의 상대는 1위인 캐나다를 비롯해 핀란드(4위), 스웨덴(3위)까지 하나같이 강팀이었다. 한국은 비록 3경기 모두 패했지만, 캐나다(2-4패), 핀란드(1-4패), 스웨덴(1-5패)을 상대로 모두 한 차례씩 리드를 잡는 선전을 펼쳤다.

특히 골리 맷 달튼에게 찬사가 쏟아졌다. 달튼은 3경기에서 155개의 유효 슈팅 가운데 143개를 막아 세이브 성공률 92.3%를 기록하는 경이적인 선방쇼로 대표팀의 선전을 뒷받침했다. 캐나다 출신의 귀화 선수인 달튼의 한국 이름은 ‘한리성’.

‘한국의 골문을 막는 철옹성이 되어 달라’는 뜻이 담겼다. 달튼처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태극 마크를 달고 뛴 귀화 선수는 한국 선수단 150여 명 중 19명에 이른다. 4년 전, 소치 올림픽 때 여자 쇼트트랙의 공상정이 유일 한 귀화 화교 선수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특히 아이스하키는 귀화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전체 귀화 선수 19명 중 11명이 아이스하키 태극전사(남자 7명, 여자 4명)들이다.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는 귀화 선수가 합류한 이후 경기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 ‘동네북’이었던 한국은 백지선 감독의 부임과 맞물려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2016년 4월 일본을 34년 만에 격파한 데 이어 지난해 4월에는 국제아이스하키연맹 세계선수권 월드컵피언십(1부 리그) 티켓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뤘다.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도 23명의 올림픽 엔트리 중 4명을 귀화 선수로 채웠다. 이들 4명은 모두 한국계다. 귀화 선수를 통해 전력의 빈틈을 채운 한국은 작년 4월 세계선수권 4부 리그에서 5전 전승 우승을 거뒀다.

아이스하키 외에는 바이애슬론이 4명으로 많고, 스키(2명), 피겨(1명), 루지(1명)가 뒤를 잇는다. 국적별로는 캐나다(8명), 미국(5명), 러시아(4명), 노르웨이(1명), 독일(1명) 순이다.

바이애슬론은 남자 선수 2명(티도페이라핀, 알렉산드르 스타로두베허츠)과 여자 선수 2명(예카테리나 아바쿠모바, 안나 프롤리나)이 평창을 겨냥해 한국 국적을 획득했다. 이중 통산 6차례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라핀은 전성기 컨디션이라면 동메달 획득까지 기대할만하다.

노르웨이어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김마그너스, 미국 입양아 출신인 이미현은 스키 종목에서 상위권 진입을 노린다.

아이스댄스의 미국 보스턴 태생인 알렉산더 켈린과 재미교포인 민유라는 피겨 무대를 빛낸다. 둘은 지난해 9월 독일에서 열린 네벨혼 트로피 대회에서 4위를 차지하며 한국 대표로는 16년 만에 평창 올림픽 자격 출전권을 따냈다.

루지에서는 세계 최고 독일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아이클 프리슈를 내세워 입상에 도전한다.

우리나라는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총 53개(금 26, 은 17, 동 10개) 땀다. 모두 빙상 종목(스피드, 피겨, 쇼트트랙)에서만 메달이 나왔다. 안방에서 열리는 이번 올림픽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4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기존 메달 종목은 물론 다른 종목에서도 좋은 성적이 필요하다. 귀화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하는 이유다.

물론 이들 귀화 선수를 못마땅해 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돈으로 성적을 사려 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하지만 스포츠 무대에서 나라·인종 간 경계가 허물어진 지 오래다.

러시아에서도 한국 국적을 버리고 귀화한 안현수(러시아명 빅토르 안)를 보는 눈이 처음에는 곱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안현수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3관왕의 위업을 달성하며 러시아의 국민적 영웅이 됐다. /연합뉴스



위 사진 왼쪽부터 안나 프롤리나(바이애슬론), 아이클 프리슈(루지), 김마그너스(크로스컨트리), 예카테리나 아바쿠모바(바이애슬론) 아래 사진 왼쪽부터 한국 아이스하키팀 맷 달튼, 마이클 테스트위드, 브락 라던스키, 에릭 리건, 마이클 스위프트, 브라이언 영.

“한국, 금메달 7개로 종합6위 예상”

美 데이터 전문업체 “쇼트트랙 5개·빙속 2개”...없는 선수 올려 신빙성 의문

‘금메달 8개로 세계 4강!’

30일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이 세운 목표다. 1988년 서울에서 열린 하계올림픽 때 우리나라는 종합 순위 4위를 차지했다. 4위는 아직도 한국의 하계올림픽 출전 사상 최고 순위로 남아 있다.

30년 만에 다시 안방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태극 전사들은 다시 세계 4강에 도전한다. 동계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가 4위 안에 든 적은 없다. 이전 동계올림픽 최고 성적은 2010년 캐나다 밴쿠버 대회의 종합 5위다. 당시에는 금메달 6개, 은

메달 6개, 동메달 2개를 수확했다.

한국은 금메달 8개로 4위를 노리고 있지만, 금메달 7개를 획득해 메달 순위 6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데이터 전문업체 그레이스노트는 올림픽 개막을 약 한 달 앞둔 이달 초 평창동계올림픽 종목별 메달 전망을 새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금메달 7개와 은메달 3개를 수확해 메달 순위 6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종목별 메달을 살펴보면 남자 1,000m 서이와 여자 1,000m 최민정, 남자 1,500m 신다운, 여자 1,500m 심석희, 여자

3,000m 계주 등 쇼트트랙에서만 금메달 5개를 휩쓸 것으로 예상됐다.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 걸린 금메달은 총 8개다. 다만 신다운은 국내 선발전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그레이스노트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를 금메달 후보로 전망한 점이 전망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우리나라는 또 스피드스케이팅 남녀 매스스타트 이승훈과 김보름이 금메달을 추가할 것으로 평가됐다.

은메달은 쇼트트랙 여자 1,500m 최민정, 스켈레톤 윤성빈, 스피드스케이팅 여

자 500m 이상화가 획득한다는 것이다. 그레이스노트는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메달 예상을 비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최근 자료인 지난해 11월 전망치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7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예상된 바 있다.

11월과 비교해 당시 금메달 후보로 지목된 이상화가 은메달 후보로 밀렸고, 은메달을 딸 것으로 예상됐던 김보름은 금메달 후보로 격상됐다. 또 동메달로 평가 받았던 윤성빈은 최근 월드컵에서 호조 덕에 은메달 후보로 한 계단 올라섰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금메달 14개씩 따내고 프랑스가 10개, 미국이 9개를 획득할 것으로 이 업체는 전망했다. 메달 순위 5위는 금메달 7개의 캐나다가 꼽혔다. 중국은 금메달 6개로 9위, 일본은 금메달 4개로 10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KIA 선수들, 새 번호 달고 새 출발

윤석민 “개인적 의미있는 24번”...홍건희 51번·서동욱 17번



야구선수들에게 백넘버는 자신을 상징하는 ‘또 다른 이름’이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영구결번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타이거즈에서는 ‘국보급 투수’ 선동열의 번호인 18번과 ‘바람의 아들’ 이종범을 말하는 7번이 영구결번이다.

무술년(戊戌年) 새해 ‘이름’을 바꾸고 그라운드에서 오르는 KIA 선수들이 있다. 새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겠다는 각오다.

올 시즌 재기를 노리는 투수 윤석민도 그중 한 명이다.

지난해 마운드에서 자취를 감췄던 20번, 윤석민은 새로 출발하는 2018시즌을 위해 24번을 선택했다.

“투수들 번호는 아니다”면서도 윤석민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번호다”고 설명했다. 익숙했던 번호 대신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 24번으로 분위기 전환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역시 마음 같지 않던 2017시즌을 보낸 홍건희도 새 번호로 무장한다.

홍건희가 사용할 번호는 51번이다. 지난 시즌까지 대선배 김원섭이 사용하던 번호다. 김원섭이 현역에서 물러나면서 홍건희가 51번을 가져갔다.

투수 홍건희는 “괜히 좋은 번호가 있는데 51번이 그렇다. 그동안은 넘볼 수 없는 번호였다”며 새로운 번호에 관해 이야기했다.

홍건희가 달았던 48번은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92 친구’ 이종석이 단다.

내야수 서동욱도 학창시절의 기억을 살

려 17번으로 돌아간다. “학교 다닐 때 썼던 번호”라고 설명한 서동욱은 지난 시즌 4번을 사용했다. 지난해 17번의 주인은 삼성으로 트레이드된 투수 한기주다.

타이거즈의 ‘잠수함’을 상징하는 19번은 돌아온 잠수함 손영민이 점찍었다. 전역 후 첫 시즌을 19번으로 보냈던 투수 이민우는 김광수가 사용했던 55번을 쓴다. 지난해 손영민의 번호였던 26번은 투수 임기준이 가져갔다.

투수 박지훈은 39번에서 신인 시절에 사용했던 37번으로 번호 이동을 했다.

예비역 투수 이윤학(20번), 문경찬(35번), 박정수(36번), 차명진(39번)과 외야수 박준태(59번)의 새 번호도 확정됐다.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KIA 유니폼을 입은 내야수 유민상과 황윤호는 각각 30번과 15번을 부여받았다. 한기주의 트레이드로 KIA로 온 외야수 이영욱은 67번을 사용한다. /김여울기자 wool@

KBO 야구발전위보고서 발간



한국야구위원회(KBO) 산하 야구발전위원회가 9일 ‘야구발전위원회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야구발전위원회가 발간한 지난 2009년부터 작년까지 9년간의 활동을 정리한 업무 실적 요약본과 야구발전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연구한 4편의 연구보고서로 구성됐다.

업무 실적 요약본에는 야구 인프라 개선, 야구 저변 확대, 신규 구단 창단, 출판물 발간 등 그동안 야구발전위원회가 축적한 야구 관련 자료가 실렸다. 또 연구를 통해 한국야구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하고 한국야구가 향후 나아갈 방향성도 담았다.

2017년 연구보고서에는 4명의 야구발전위원이 참여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병호 美 생활 접고 2년만에 귀국

KBO리그를 휩쓸었던 홈런왕 박병호(32·넥센 히어로즈)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도전을 마감하고 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2016년 한국을 떠난 지 정확히 2년 만이다.

박병호는 KBO리그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연속 홈런왕과 타점왕에 오른 토종 거포다.

2012년 31홈런, 2013년 37홈런을 때려 KBO리그를 대표하는 거포로 자리매김한 그는 2014년 52홈런, 2015년 53홈런으로 최초의 2년 연속 50홈런 기록을 달성했다.

박병호는 2015시즌이 끝난 뒤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했다.

포스팅 금액 1285만 달러를 적어 낸 미네소타 트윈스 구단이 독점 계약 권한을 얻었고, 박병호는 미네소타와 4+1년 총액 1200만 달러에 사인했다.

그러나 박병호의 미국 생활은 순탄치 않



았다.

2016시즌 초반에는 장거리 홈런포를 평평 터트렸다. 그러나 빠른 공에 약점을 노출하면서 성적이 추락, 타율 0.191 12홈런 24타점을 남기고 7월 마이너리그로 내려갔다. /연합뉴스